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성황'

18~20일, 3일간 5만여 명 발길… 익산 야행 역대 최다 방문

야간조명·감성 텐트·최태성 선생 강의 등 방문객 '큰 호응'

2025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역대 최다 방문객이 찾는 흥행을 기록하며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익산시는 지난 18~20일 3일간 백제왕궁(왕궁리유적)과 금마 일원에서 열린 '2025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에 5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백제의 밤을 여는 사람들'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마치 백제인이 된 듯한 몰입과 경험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총 50여 종의 콘텐츠는 전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체험형 야행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너른 백제왕궁 전역을 수놓은 야간조명은 방문객들에게 밤하늘 속 낭만적인 봄의 정취를 선사했다. 또한, 투명한 텐트에서 별빛을 감상하는 힐링 체험 '감성 텐트'는 유료임에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큰 별 최태성 선생의 역사 해설 강연은 많은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강의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익산왕궁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특히 올해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행사를 백제왕궁에서 금마까지 확장해, 단일 유적 중심의 행사에서 지역 연계형 야간문화행사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금마에 위치한 고도 한눈애(愛) 익산세계유산센터를 중심으로 △금마농협 로컬푸드 체험 △국가유산 놀이터 △지역 문화단체 공연 등이 어우러졌다. 이에 상권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성공적으로 연계한 야행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차 없는 야행'을 기치로 걸고, 외곽 주차장과 행사현장 간 순환버스를 운영해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은 2018년부터 8회 연속 개최되고 있으며, 매회 수만 명이 찾는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2023년, 2024년 국가유산청 전국 우수야행에 선정, 지난해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아시아 야시장·야행 부문 수상 등 국가유산 야행의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세종서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돌입

정헌율 시장 등 공무원 70여명, 전략회의 참석·부처 방문

국가예산 확보 439건 1조 1132억원 대상… 적극 대응 나서

익산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 부시장, 국·소·단장, 사업부서장과 실무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현재 부처 단계에서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익산시 중점사업이 실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대상은 총 439건, 1조 1,132억 원 규모로, 전년도 확보액보다 1,017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신규사업은 46건(511억 원), 계속사업은 393건(1조 621억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사업부서의 중점사업 추진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예산 확보 실무 전략 강화를 위해 조기문 기획재정부 사무관(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 팀장)을 초청해 예산 편성 흐름과 정부 부처 설득 전략, 실무자 대응법 등을 담은 특강이 이어졌다.

전략회의에 앞서 부시장을 비롯 간부 공무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했다.

이번 부처 방문에서 전문 교육기관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과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시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부처 단계 예산 편성 과정에 맞춰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처별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조 체계를 통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안 확정(6~8월), 국회 심의(9~12월) 단계별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중 대응에 나선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반침하 사고 예방 '총력'

노후관 교체 현장·하수관로 공사장·맨홀 주변 등 점검

전문 장비 활용 상·하수관로 지반 탐사… 공동 발견 즉시 복구

익산시가 지반침하(싱크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상·하수관로 주변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남중동, 신동, 모현동 등 노후관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인 구도심 지역을 비롯해 △주요 도로 구간 △하수관로 대형공사장 5개소 △시내 전역의 맨홀 2만 7,000여 개소 주변 지역 등이다.

시는 대상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문제 사항 발견 시 즉각 복구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수도과 2개조, 하수도과 3개조 등 총 5개조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6월까지 상시 집중 점검체제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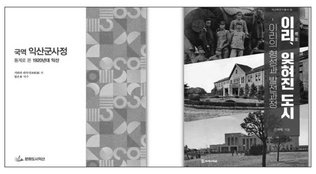
이와 함께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경 500㎜ 이상의 상·하수관로 구간 24㎞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전문업체를 통해 2022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한 지반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탐사 결과 발견된 지하 공동 67개소에 대한 복구를 지난해까지 완료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복구를 통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문화도시 익산, 지역사 연구 기반 강화

'국역 익산군사정'·'이리, 잊혀진 도시' 발간



문화도시 익산시가 지역 정체성 확립과 학술기반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익산학 연구총서 13권 '국역 익산군사정'과 14권 '이리, 잊혀진 도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익산학 연구총서는 지역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 도서 발간사업으로, 문화도시 익산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발간된 13권 '국역 익산군사정'은 일제강점기 익산군청 공무원이었던 일본인 기하라 히사시(木原壽)가 1928년 편저한 '익산군사정'을 국역한 것이다. 익산군사정은 1920년대 익산군의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어, 당시 지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다만 일본인 관점에서 작성된 자료인 만큼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역 익산군사정은 총 3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광대학교 양은용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1편 '익산군세'는 1920년대 익산군의 도시·사회·경제 상황을, 2~3편 '산하 각 면세'는 익산군 내 18개 면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63년 충남 논산시로 편입된 '황화면(皇華面)'에 대한 기록도 포함돼 있다.

14권 '이리, 잊혀진 도시'는 익산근대문화연구소 신귀백 소장이 집필한 연구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이리의 식민 도시 형성 과정을 분석해 도시의 정체성과 변천사를 추적한다.

또한 당시 민중의 현실을 복원해 도시의 속살을 살펴보고, 문학과 영화 속 이리를 분석해 도시의 기억과 정서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권의 총서는 모두 근대기 익산의 사회 구조, 주민 생활상, 공간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익산학 연구총서를 전국 100여 개 도서관에 배포해 왔으며, 이번에 발간된 두 권의 총서도 이달부터 전국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 선정·협약 체결

군산시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끝내고,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은 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서 새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후보를 모집했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량평가(20점) 및 정성평가(80점)를 거쳐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2025년 5월부터 2년간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경영·판로·홍보 지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및 교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 실질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앞으로도 시는 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보석박물관 진흥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제시

익산시의회 김순덕 의원은 최근 보석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보석박물관 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김순덕 의원은 "2002년에 보석박물관이 개관했을 때는 '보석'이라는 테마로 접근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은 박물관도 새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고 싶고, 사고 싶고, 즐기고 싶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맞게 박물관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박물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이 올해로 21회를 맞았다"며 "매년 상금을 두고 시상도 하는 만큼 출품된 작품들을 익산역과 국화 축제장 등에서 전시하고 이모티콘과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것을 부서와 협력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군산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의회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용도폐지 △취득 △사용료 감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군산=이재춘 기자